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Calvin's Theology for the Church)

발표자: 김성봉(안양대학교)
발표일: 01. 09. 20. 목

시작 말

제 1 장 당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칼빈의 묘사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을 서술하기에 앞서 당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칼빈이 어떻게 묘사하였던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그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당시 프랑스의 통치자였던 프란시스 1세(1515-1547)에게 드렸는데, 그 헌사[1] 에서 그 당시 참 교회가 당한 형편을 다음 몇 가지로 말하였다. -중략- 즉 당시 교회가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비참한 환란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략-

칼빈은 그 당시 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운 표지인 말씀의 바른 선포와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권징의 시행과 말씀에 따라 시행되는 성례는 바른 모습을 잃고 있었다고 한다. 교회의 교회다운 표지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의 바른 선포 즉 교리와 관계하여 칼빈은 그 당시 추기경이었던 사돌레토에게 "교회가 기초를 두어야 하는 그 선지적 및 복음적 교리의 진리가 그대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검에 의하여 무참하게 제거되었습니다" [2]고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징에 관하여서도 "그대들은 초대 교회 주교들이 만들었던 모든 제도들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고, 성례에 대하여서는 "성례에 대한 그대들의 극악한 신성모독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엄청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여 의식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의식들 대부분이 매우 유치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고, 수많은 형태의 미신들에 의해 더럽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보전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용한 것들" 이라고 하였다.[3] 칼빈에게 있어서 당시 교회는 "매우 참혹하고 절망적으로 보여졌으며," [4] "매우 고통 가운데 있으며 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5] 것이 사실이다.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흘러도 더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 강요 초판을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했던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1549년 칼빈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을 당시 폴란드의 왕이었던 S. 아우구스투스(Augustus) 폐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수많은 거짓말들 밑에 파묻혀 버렸고, 모든 하나님의 제도들

1) Calvin, "Prefatory A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i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pp.9-31. 이하 Calvin, "Prefatory Adress"로 표기함.
2)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박건택 역(서울: 바실래 1989), 37면.
3) 같은 책, 38면.
4) 칼빈, 종교개혁의 필요성,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4), 11면. 이 논문은 1544년 2월 제 3회 슈파이에르(Speyer) 회의에 대비하여 칼빈이 개신교 측의 입장을 칼 5세와 여러 의원들에게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변증한 것이다.
5) 같은 책, 12면.

은 가장 더러운 부패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모독되어 신앙교리가 완전히 버려졌으며, 성례전들의 의식은 썩었고, 교회의 정치는 잔인한 폭정으로 변해 버렸으며,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악덕스러운 상거래가 도입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악한 자들의 무절제한 포학을 지지하는 데 잘못 이용되었고, 그리스도교 대신에 가장 무서운 냉소에 찬 모든 종류의 가공할 신성모독이 일어난 것입니다." 6)고 당시 거짓된 교회의 부패상을 토로하였다. 칼빈이 보기에는 교회는 현재 고통 중에 있었다.7) 1550년 그는 영국 왕 에드워드(Edward) 6세 전하에게 그의 이사야서 주석을 헌정하면서 당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반문하였다. "계속적인 풍요함은 인간들의 악의와 배은망덕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는 그렇게 값비싼 예복을 박탈당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그렇게 호화로운 의복을 벗김 당한 뒤에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로 하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적은 숫자만이 숨겨진 장소에 남아 있게 됩니다. ...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의 발 밑에 두고 짓이기며 군림하고 있음을 봅니다. 거기서 교리의 순수성이 기괴한 오류로 인하여 부패되고, 충격적인 살인이 합법정부에 들어오게 되었고, 성례의 일부는 거대한 부패로 인하여 품위가 저하되었고, 일부는 불명예스러운 판매를 드러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되고 자연스러운 영적 건축미에 우울한 퇴폐함 밖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8) 그 이듬해에도 칼빈은 에드워드 6세 전하에게 베드로전서를 헌정하면서 "실로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 이 교활한 타락의 무리들로 인하여 복음의 순수성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면 ... " 9)이라고 하여 복음의 순수성이 흐려지고 있는 데 대하여 안타까워하였고, "이런 와중에서도 교황은 ... 기만적인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10)고 하여 그 당시 소집된 종교회의가 기만적인 것임을 역설하였다.

-중략-

이러한 형편 하에서는 성경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빛이 아주 가리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소피스트들의 거짓된 해석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치욕스럽게 왜곡되어 있고 또 오늘날 교황에게 고용된 어중이떠중이들이 그들의 연막으로 성경의 빛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 계략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 " 11) 이러한 탄식은 1555년에 프랑크푸르트시 의회와 의원들께 공관복음을 헌정하면서도 계속되고 있다. "하늘이 보낸 사자들로 만족치 않고, 복음의 명칭 아래 썩어 빠진 쓰레기를 쑤셔 넣어 신앙의 순수성을 녹슬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만드는 처사는 용인할 수 없는 짓" 12)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교회가 당한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교회를 위하였던가?

제 2 장 당시의 영적 형편

이제 칼빈 당시의 영적 형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칼빈 당시의 영적 형편으로는 한편으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면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있겠다. 먼저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면부터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6) Calvin, "Dedication," in: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Grand Rapids: Eerdmans 1963). 이하 Calvin, "Dedication," in Hebrews로 표기함. pp. x-xi.
7) 칼빈은 이사야 주석 헌사 중에서 "현재 고통 중에 있는 교회"(the present distresses of the Church)(Calvin, "Dedicatory," in Isaiah, p. xx)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8) Calvin, "Dedication," i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Grand Rapids: Eerdmans 1953). 이하 Calvin, "Dedication," in Isaiah로 표기함. p.xxii.
9) Calvin, "Dedication," in: Calvi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 trans. by W.B. Johnston(Grand Rapids: Eerdmans 1963). 이하 Calvin, "Dedication," in Peter로 표기함. p.219.
10) ibid., pp.219-221.
11) ibid., p.225.
12) Calvin, "Dedicatory Epistle," in: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1), trans. by A.W. Morrison(Grand Rapids: Eerdmans 1972). 이하 Calvin, "Dedicatory," in Gospels로 표기함. p.ix.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정적 형편

1544년 칼빈은 카알 5세에게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당시의 부패한 영적 형편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엄청난 그릇된 생각으로 더럽혀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불경건과 증오스러운 미신에 의해 무디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위는 심한 모욕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은 발에 짓밟히고 훼손 당하였습니다. 아니 전 기독교계가 공공연히 우상 예배로 부패되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들어 낸 것을 섬기며 절합니다. 수다한 종류의 미신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에서 사라져 버렸고, 구원의 근원이 저들에게서 떠났으며, 사람들의 관심은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헛된 의식으로 옮겨지고, 성례전 역시 심히 더럽혀졌습니다. 세례는 여러 첨가물로 퇴색되었으며, 신성해야 할 만찬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된 방법으로 변질되어 치욕스럽게 되었고, 경건은 전혀 윤곽도 볼 수 없는 형식으로 타락되어가고 있습니다.” 13)

그때로부터 5년 후인 1549년 칼빈은 S. 아우구스투스 왕에게 그의 히브리서 주석을 헌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부패되고 추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많은 미신적 관습들이 그 위치에 숨어들어 왔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큰 암흑으로 인하여 무가치하게 눌려 찌그러졌고, 그의 죽음의 권능은 파괴되어 그 자신은 마음이 찢기고 헝클어졌으며, 구원의 보증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양심은 비참하고 심하게 찢기고, 또 가책을 받았으며, 비참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진실 된 예배로부터 이리저리 낯선 방황의 길로 헤매어 나갔고, 교회는 무자비한 폭정으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있는지라, 요컨대 기독교의 어느 부분도 그 순수성을 남기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14)고 하여 그 당시 영적 형편의 부정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중략-

2. 긍정적 형편

그 당시 영적 형편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면도 있었다. 그는 에드워드 6세 전하에게 보내는 이사야서 헌사에서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주님은 전혀 기대 밖으로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암 9:11)’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5)고 하여 당시 상황을 상당히 희망적이며 고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 3 장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1. “교회를 위한” 이라는 칼빈의 직접적 표현

1)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직접 표현한 말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 활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우에 명시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 강요의 헌사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는 ...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들을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별히 나의 동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저술하였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주리고 목마른 듯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적은 지식마저도 바로 터득한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 칼빈,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178-179면.
14) Calvin, "Dedicatory," in Hebrews, pp. xi-xii.
15) Calvin, "Dedicatory," in Isaiah, pp.xxii-xxiii.

바로 이것이 내가 붓을 들게 된 의도라는 것은 ...”[16] 여기서는 교회가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 또는 “나의 동포 프랑스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다.

그 때로부터 23년 후인 그의 노년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정열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여 그가 지난 23년간 쏟은 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그는 “더욱이 본서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전보다 더 많은 유익을 주었다면 ...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기도 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목표였음을 밝혀주었다. “교회를 유익 되게 하는” 것은 그의 지속적인 관심이었다. 같은 글에서 그는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 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천사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고 하였으며, “만일 여러분들이 나의 이 노작에서 어떤 유익이라도 얻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로 나를 도와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를 유익 되게 하는 것은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2) 그의 주석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에의 자세는 1539년에 낸 로마서를 필두로 하여 1563년에 낸 예레미야 주석에 이르기까지 각 책의 헌사나 저자 서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석서로는 처음인 그의 로마서 주석은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완성되었는데, 그는 그 책을 S. 그리네우스(Grynaeus)에게 헌정하였다. 그레네우스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오기 전 약 3개월간 그의 집에 머물렀던 바젤의 유명한 신학자이다. 그는 그 헌사(1539. 10. 18)에서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슨 유익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를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17]고 하거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감히 무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졸작이 다소는 유익하며, 교회의 공동의 유익만을 위해서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18]고 하였고,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어떤 문구들을 수집함에 있어서 ... 하는 문제로 얼마간 저는 망설였습니다.”[19]고 하여 같은 의미의 말을 표현을 바꾸어 다양하게 쓰고 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은 해석을 가리켜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판단을 내리는 고통을 덜어 주게 된다면, 저는 이 과업을 착수했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20]고 하거나 “저는 특별히 모든 문제점을 아주 간략하게 다룸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저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서에서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게 하고자 결심했었습니다.”[21]고 하여 같은 의미의 말을 하였으며,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의 견해를 물리칠 때에는 ... 필요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익을 끼치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고 하여 ‘교회를 위한’ 그의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22]

-중략-

---

16) 1536년 8월 1일 또는 23일자 헌사, 41면.
17) Calvin, "Dedication," in: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trans. by R. Mackenzie(Grand Rapids: Eerdmans 1960). 이하 Calvin, "Dedication," in Romans로 표기함. p.1.
18) ibid., pp.2-3.
19) ibid., p.3.
20) ibid.
21) ibid.
22) 1563년에 쓴 예레미야 주석의 저자 서문과 1565년에 처음 발간된 에스겔 주석에 실린 존 빌레르의 추천사를 참조.

그는 1549년에 그의 동료 W. 파렐(Farel)과 P. 비레(Viret)에게 디도서와 야고보서 주석을 헌정하는데, 그 헌사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세력을 무시해도 잘못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으며, 우리(W.Farel, P.Viret과 J.Calvin)의 우정과 동맹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바쳐지고 있어서 그의 교회에 지금까지 유익이 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3] 이듬해(1550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써서 당시 로잔느 대학장이었던 M. 코르디에(Cordier)에게 헌정하였는데, 그 헌사 중에서 "마땅히 선생님(로잔느 대학장 Mathurin Cordier)께서 제 일의 일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제가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 과목을 시작한 뒤 하나님의 교회에 최소한 약간의 유익을 끼칠 정도로 발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 하여 선생에게 배운 바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해(1550년) 그는 이사야서 주석을 완성하여 에드워드 6세 전하에게 드리는데, 그 헌사 중에서 그는 자신들의 노력을 가리켜 "교회의 순수하고 신실한 행정을 촉진시키려는 우리의 줄기찬 노력"[24]이라고 하며, "우리가 교회의 폐허를 보수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법과 규례를 순종한다는 사실과 교회의 회복은 주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25]이라고 하여 자신들의 노력의 방향이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고, 그는 단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26] 그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사야는 고레스를 통해서 권면하기를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곤궁에 빠졌을 때 원래의 좋았던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27]고 하여 간접적으로 그 시대에서 교회를 위한 왕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그 이듬해인 1551년에 베드로전서 주석을 완성하여 역시 같은 에드워드 6세 전하에게 드리는데, 그 헌사 중에서 "이 일은 나의 책들이 전하의 명의로 출판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8]라고 하여 그렇게 하는 의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우선 내가 속한 교회부터 ... 그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교회는 차후로도 더욱 오랫동안 계속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29]고 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53년에는 요한복음 주석을 완성하였는데, 그는 특히 이 주석을 제네바시의 지방장관들과 의원들에게 드리고 있다. 그는 그 헌사에서 "지금까지의 나의 많은 저술들이 내가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를 세상에 충분히 증거하여 주겠지만 ..."[30] "내가 가르친 이런 교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31]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출판된 나의 저술들에서 여러분과 ...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후에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이 도시에서 다른 외국으로 퍼져나간 복음의 씨앗이 마땅히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32]라고 하여 그가 사람들이 그의 사후에 얻게 될 유익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염려하고 애쓰는 것을 나의 최대의 열망으로 내 가슴에 심어주셨고, 그것이 성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33]고 말하여 그의 노력이 "여러분 모두의 구원"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략-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3) Calvin, "Dedication," in: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by T.A. Smail(Grand Rapids: Eerdmans 1964), pp.347-348.
24) Calvin, "Dedicatory," in Isaiah, p.xxiii.
25) ibid., p.xxiii.
26) ibid., p.xxiv.
27) ibid., pp.xxiv-xxv.
28) Calvin, "Dedication," in Peter, p.219.
29) ibid., p.226.
30) Calvin, "The Dedicatory Epistle," in: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trans. by T.H.L. Parker(Grand Rapids: Eerdmans 1959). 이하 Calvin, "Dedicatory," in John이라 표기함. p.3.
31) ibid.
32) ibid.
33) ibid.

다니엘서 주석은 1561년에야 완성되는데, 그는 이 책을 프랑스 신앙인들에게 드린다고 하였다. 그는 그 책의 헌사에서 "나는 이 전기간을 통해 공적으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노력해 왔고, 사적으로는 부단히 무기력한 자들을 일깨우고 나태한 자들을 자극하며, 떠는 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과 포기하는 자들을 격려해 왔으므로, 이제 이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시기에 그들에 대한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34)고 하여 그의 활동, 그의 노력이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어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직분을 저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 때까지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나의 소망에 대한 하나의 맹세로써 모든 노력을 바쳐 왔습니다." 35)고 하여 프랑스 교회를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맹세로 받쳐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예레미야서의 주석은 라인의 영주이며 신성로마 제국의 선거후인 D. 프레데릭(Frederick) 왕에게 드려지는데(1563년), 그 책의 헌사에서 그는 "만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상당한 일을 했고, ... 충고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36)고 하여 그가 지금껏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상당한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어서 "저는 실로, 만일 제가 이 책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지 못했다면, 결코 이것이 공중을 위해 방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증언할 수 있으므로, 건방지다는 비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사옵니다." 37)고 하여 자신의 책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 곳곳에서 자신의 신학활동이 "교회를 위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2. "교회를 위한"에 해당할 만한 칼빈의 간접적 표현

1) 기독교 강요에서

앞에서는 칼빈이 "교회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 강요 초판의 헌사에서(1536) 그는 그 당시 교회의 형편을 묘사하면서 "그러나 어떤 사악한 자들의 광포가 극도에 달하여 폐하의 나라에서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책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나의 신앙고백을 폐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는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8)고 하여 자신의 책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폐하께 보여드리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을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장이자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장을 지금 변호하려는 것뿐입니다." 39)고 하여 그의 주장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였고, "우리는 여기서 ... 우리의 신앙고백을 읽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기 위해 일체의 덕을 벗어 버렸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다는 것, ...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0)라고 하여 그의 저술이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1559년) "본서에서 내가 목적한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41)라고 하여 지난 23년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목적이 한결같이 교

34) 칼빈, "헌사," in: 칼빈, 다니엘서 주석(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이하 칼빈, "헌사," in 다니엘이라고 표기함. 67면.
35) 같은 책, 78면.
36) Calvin, "Dedication," in Jeremiah, p.xvii.
37) ibid., p.xxiii.
38) Calvin, "Prefatory Address," p.9.
39) ibid., p.11.
40) ibid., pp.12-13.

회를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그의 주석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한다는 칼빈의 마음은 기독교 강요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주석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 주석인 로마서 주석이 나오고 9년 정도 지나서 나온 갈라디아서 주석은 당시 비르템베르크의 공작이며 몽베리아르의 백작이었던 크리스토퍼(Christopher) 각하에게 헌정되었는데(1548년), 그 책의 헌사에서 그는 "실로 오늘날까지 경건한 교훈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시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현재의 교회의 재액과 곧 다가올 것 같은 급박한 대 곤란 속에서는 아무리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경건한 교훈으로부터 오는 위로 밖에는 위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위로 밖에 달리 무엇을 바라겠습니까?"[42]라고 하여 자신의 주석이 바로 그와 같은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공의 그러한 자태에서 모든 사람이 모방하고 따를 하나의 모범을 본다는 것은 전 교회에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공의 어신(御身)에서 빛나는 비범한 모범으로써 모든 사람을 자극하고 각성시켜서 저들의 마음의 나약함과 나태함을 고쳐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43]고 하여 그의 책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도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도록 권하였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의 주석은 1556년에야 완성되었는데, 그는 그것을 에드워드 경에게 헌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이 세상에 복음의 보다 순수한 가르침을 회복시키는 데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로 기꺼이 삼아주셨다"[44]고 하여 그의 사역이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고, 이어 "나는 내 선물을 ...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까닭은 ... 어떠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 하는 점을 충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5]고 하여 이 책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이듬해(1557년)에 그는 호세아서 주석을 완성하여 구스타프(Gustavus) 왕에게 헌정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주석을 위하여 무슨 재능을 부여해 주셨다면 이 성경 주석에서 모든 불모의 상세한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성실하고도 세심하게 노력하였다는 확신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46]고 하여 지금까지도 그가 성경 주석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지만 이 주석에서 더욱 그러한 재능이 발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까지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응용하였다고 나는 확신합니다."[47]고 하여 교회 가운데서 보다 열심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주석을 썼음을 분명히 하였다. 같은 해에 그는 시편 주석을 완성하였는데, 그 저자 서문을 "내 자신이 이 주석들을 집필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나의 주석들을 읽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친다면 나는 나의 노고를 후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48]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 훈련되지 못한 독자들에게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49]고 하여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말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보물을 공개하는 데 신실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 나의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만

41) Calvin, "To The Reader," i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pp.3-5.
42) Calvin, "The Dedicatory Epistle," in: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by T.H.L. Parker(Grnad Rapids: Eerdmans 1965), p.1.
43) ibid.
44) Calvin, "The Dedicatory Epistle," in: Calvi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aul The Apostles to Timothy, trans. by T.A. Smail(Grand Rapids: Eerdmans 1964), p.182.
45) ibid.
46) Calvin, "Dedicatoruy," in Hosea, pp.xviii-xix.
47) ibid., xix.
48) Calvin, "Preface," in Psalms, p.xxxv.
49) ibid., p.xxxvi.

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50]고 하여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신실한 수고"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시편을 주석함에 있어서 "교회의 교화에 관계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51]고 하여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한 생각만이 그의 신학 작업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암시해 준다.

칼빈은 그의 노년(1561년)에 다니엘서 주석을 완성하여 자기의 동포인 프랑스 신앙인들에게 바쳤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많은 장애가 가로놓인 길을 달려갈 것이 요구되지만, 이 책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누구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자를 출발점에서 결승점에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한편 선하고 분투적인 투사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이 충분히 시합에 대비해 왔다고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52]고 하여 그가 쓴 주석이 고국의 교회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보다 2년 후(1563년)에 완성된 예레미야서 주석은 당시 라인의 영주이며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였던 D. 프레데릭(Frederick) 왕에게 헌정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비록 지식과 가르치는 재능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을지라도 저는 편견 없고 판단력 있는 사람들의 눈에 신앙과 믿음이란 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노력해 왔사옵니다."[53]고 하여 그의 노력이 오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환경 하에서도 최소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54]고 하여 그의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도 자기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비록 칼빈이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강론을 기록한 에스겔서 주석에 그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드렸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교회를 위한 그의 한결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지혜에 대한 하늘의 비밀을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교화를 위해 경건하게 묵상함으로써 참된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55]

3) 기타 그의 저술들에서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은 그의 다른 저술들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한 일은 곧 양떼를 위한 일이었다. 그는 양떼를 위한 목자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양면적으로 이해하였다. "목자들이 한편으로는 온순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평화롭게 인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자들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56] 즉 평화롭게 인도하는 사역과 무장을 갖추어 대적하는 사역이다. 칼빈은 1539년에 이 같은 표현을 하였는데, 그의 일생동안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양면적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544년에 작성한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논문은 당시 교회가 당면한 다양한 질병과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시된 치료법의 유효적절성과 그 질병 치료의 긴급성을 논하므로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하였다.[57]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이처럼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들 곳곳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의 자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동시대 사람들의 칼빈에 대한 묘사 중에서

---

50) ibid., p.xlviii.
51) ibid., p.xlix.
52) 칼빈, "헌사," in 다니엘, 68면.
53) Calvin, "Dedication," in Jeremiah, p.xxiii.
54) ibid.
55)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trans. by Th. Myers(Grand Rapids: Eerdmans 1948), p.50.
56)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23면.
57) 칼빈,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17-19면.

칼빈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는 사실은 이처럼 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증거되고 있다.

1557년에 완성된 호세아서 주석에는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글이 함께 실려 있는데 우리는 베자의 글에서 칼빈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 중에서 몇몇 구절들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사용된 훌륭한 도구였다는 것을 ... 당신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 참된 종교의 회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의 작업은 특별히 당신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당신의 가르침과 부지런하심과 불타는 열성에서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58) 또한 베자는 "프랑스와 스코틀랜드가 자기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재확립시킨 것도 당신의 덕택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다른 교회들도 이 점에서 당신께 큰 은혜를 입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59)고 하여 칼빈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을 받은 나라의 교회들로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꼽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다른 교회들" 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 주석에는 베자의 글 뿐 아니라 존 뷰데의 글도 실려 있는데, 뷰데는 "그러한 강의가 주는 유익이 ...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또 거의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60)고 하여 칼빈의 강의가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이 당연하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본 주석서를 완성하여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뷰데는

-중략-

호세아서 주석에는 J. 크리스핀(Crispin)의 글도 실려 있는데, 그는 거기서 칼빈의 강해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 "그는 어디에서나 성령의 의도를 천명하고, 성령의 순수한 의미를 제시하며, 또한 모든 심오한 교훈들을 우리들의 눈앞에 제시하기 때문에 ..." 61) 또한 "그는 가장 무거운 분위기를 적절한 단어들로 해석하고, 모호한 것들을 명백하게 취급하고, 그것들에게 다양한 장식품들을 꾸며주는 식으로 그의 가르침이 진행되어서 ... " 62) 이러한 내용들은 칼빈이 그의 주석 직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행하였던 일들이다.

예레미야 주석에서는 칼빈 사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발행자가 독자에게 드리는 글' (1576년)에서 "이제 크리스챤 독자인 여러분이 본 주석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여하한 유익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63)고 하여 그 주석으로부터 얻게 될 유익을 이미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칼빈 사후에 완성된 에스겔서 주석은 베자가 당시 프랑스의 대 제독 콜리니 각하에게 헌정하였는데(1565년), 거기서 베자는 "그의 수고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입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 누구를 그와 비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 그는 ... " 64)라고 하여 칼빈의 조사(早死)가 교회가 누릴 수 있을 유익을 크게 감소하게되었음을 통탄하고 있다. 베자는 칼빈을 사람에

58) Th. Beza, "Iean Calvin de Noyon en Picardie,"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1),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6), p.16c.
59) ibid.
60) J. Budaeus, "To Christian Readers,"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1),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6), p.xxiv.
61) J. Crispin, "To Christian Readers,"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1),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6), p.xxxi.
62) ibid.
63) "The Printer to the Christian Reader,"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950). 이하 "The Printer"로 표기함.
64) Th. Beza, "Dedication,"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trans. by Th. Myers(Grand Rapids: Eerdmans 1948), p.xxxix.

있어 "눈"의 유용성에 비교하기도 하였다.[65] 뿐만 아니라 베자는 그와 그의 시대의 교회가 받았던 유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곧 첫째는 우리가 최근의 가장 훌륭한 그의 언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결국 같은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처럼 방대하고 정확한 교리의 업적을 남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66]

에스겔서 주석에는 챨스 드 존빌러의 추천사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추천사에서 칼빈을 가리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탁월한 우리의 부모"[67]라고 칭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칼빈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는가를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는 "그의 저작 중 몇몇은 이미 출간되었으며 그 나머지도 ... 경건한 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68]고 하여 칼빈이 남긴 글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칼빈을 떠나 보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손실과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복구하기 위해 ... 몇몇 사람이 뜻을 합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석이 출판되는 것이 신실한 자들에게 더욱 유익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 우리는 ... 독자들의 유익을 위해 에스겔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완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69] 우리가 이런 글들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칼빈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칼빈의 신학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유익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4. 후대 사람들의 칼빈에 대한 묘사 중에서

이제 칼빈 자신의 글이나 칼빈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글 외에 칼빈의 후대 사람들이 칼빈의 신학을 가리켜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고 증언하는 바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칼빈의 글들의 영역본에서 얻을 수 있었다. 칼빈의 글들은 1840년대와 1940년대에 각각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먼저 1840년대의 번역자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인물로 존 오웬을 들 수 있다.
오웬은 "그의 주석을 현대와 과거의 다른 주석과 비교하면서 곰곰이 생각할수록 더욱더 그의 주석으로 만족하게 되고, 거기에 담겨진 통찰력과 건전한 판단을 더욱더 칭송하게 된다."[70]고 하여 그의 주석의 탁월성을 역설하였으며, "주석가로서의 칼빈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본문의 문맥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이다."[71]고 하여 그의 주석이 장황하지 않고 본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오웬은 "칼빈이 늘 하던 대로의 열심과 투시력과 판단력으로 재량껏 그 재능을 계속 발휘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72]고 하여 열심과 투시력과 판단력은 칼빈의 저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요소임을 밝혀주고 있다. 오웬은 또 다른 소선지서의 주석 서문에서 "우리가 그의 노력에 대해 공명정대히 평가한다면 ...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그토록 풍부히 자기 종에게 주셔서 그를 참된 종교의 이익에 그토록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특별히 감사하게 된다."[73]고 하여 칼빈의 신학 작업이 "참된 종교" 즉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또 다른 소선지서의 주석 서문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종 아주 놀라운 것도 있지만 교훈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74]고 하여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오웬이 보기에 "칼빈은 본문과

65) ibid.
66) ibid., xl.
67) Ch. de Jonviller, "To all Truly Christian Readers,"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trans. by Th. Myers(Grand Rapids: Eerdmans 1948), p.xlvi.
68) ibid.
69) ibid., pp.xlvii-xlviii.
70) J. Owen, "Translator's Preface,"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Vol.2),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6), p.ix.
71) ibid.
72) J. Owen, "Translator's Preface,"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Vol.3),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7), p.xiv.
73) ibid.
74) J. Owen, "Translator's Preface,"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Vol.4),

문맥의 흐름에 가장 적합한 해석을 했으며," [75] "칼빈은 본문에 충실하며 본문이 엄격히 요구하는 의미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76] 또한 그가 보기에는 "칼빈이 의도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것" [77]이었다. 오웬은 "하늘의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고 읽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으로 양육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위로부터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칼빈의 주석이 내포하는 의미를 주의 깊게 숙독함으로써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78]고 하여 칼빈의 주석을 통하여 실제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숙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 더구나 오웬은 "칼빈 전후로 많은 주석가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풀이하고 동시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할 만큼 심오하게 연구한 재능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79]고 하여 쉽고도 심오하게 써낸 칼빈의 재능에 대하여 찬탄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본문의 취지를 지적하여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본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 의미와 실질적인 교훈을 능력 있게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을 능가한다." [80]고 하여 이 일에 있어서 칼빈이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인케 하였다.

존 오웬의 시대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뒤에(1947년) 다시 미국에서 칼빈의 글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때에 E.J. 영(Young)이 이사야서 주석에 쓴 서문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영은 "칼빈의 주석을 손에 든 독자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안전하고 가치 있는 안내역을 가졌다고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그 어느 때도 오늘날처럼 그런 안내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는 없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있어서 이사야서는 파괴적이고 비평적인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81]고 하여 칼빈의 주석이 400여년이 지난 그 때에도 여전히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계속하여 영은 "안심하고 독자들을 인도하여 이사야서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의지할만한 현대적 주석이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볼 때 본서의 발행자들은 이 시대의 유익을 위해 존 칼빈의 이러한 훌륭한 주석들을 ... 그리하여 그들 발행자는 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의 진정한 봉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82]고 말하여 자신의 시대에 칼빈의 주석을 새롭게 내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칼빈의 주석이 단지 교리적인 관심만 있는 건조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에도 관심을 가진 윤기 있는 것임을 잘 표현하였다. "그는 성경을 파헤쳐 나갈 때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분리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교리와 윤리가 손을 잡고 간다. 칼빈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당해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님의 빛 속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역시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할 것이다." [83] 깊이가 있으면서도 읽기가 쉬운 것, 이것이 칼빈 주석의 특징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비록 이 주석이 깊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하게 씌어진 것이다." [84]

영과 같은 시대에(1948년) R.K 루돌프는 또 다른 면에서 칼빈 주석의 유익점을 말하고 있다. "신학적인 문헌의 전체 분야에서 그 어느 저자를 막론하고 개혁신앙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하신 거룩한 교훈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면에서 칼빈보다 더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저자는 없다." [85] 루돌프는 이

---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8), p.ix.

75) ibid., p.x.

76) J. Owen, "Translator's Preface,"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Vol.5),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9), p.ix.

77) ibid.

78) ibid.

79) ibid., p.xi.

80) ibid., p.xii.

81) E.J. Young, "Introduction," i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Grand Rapids: Eerdmans 1953), pp.vii-x.

82) Ibid.

83) Ibid.

84) Ibid.

같은 칼빈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사상가이며 주석가로서 칼빈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자기 자신의 것인 양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정신을 그 진리의 특별한 의미에 의해 지배당하도록 내어 맡기는 방법에 있다."[86]

이처럼 칼빈의 시대로부터 300년 또는 400년 후대의 사람들조차도 칼빈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고 자신들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다.

5.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우리는 이 장에서 칼빈의 신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칼빈의 신학이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교회를 위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박해에 대하여 교회를 변증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하였으며, 둘째는, 교회를 빙자한 미혹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하였으며, 셋째는, 교회에 진리를 밝혀주는 것으로 교회를 위하였다고. 첫 번째의 경우는 기독교 강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다. 기독교 강요에 대하여 칼빈 연구가인 W. 노이저 교수는 "전체 사고의 과정과 내용은 최종적으로 깊은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매 판에서 칼빈은 프랑스의 개신교들에 대한 변증을 거의 변화 없이 우선하여 언급하였다"[87]고 쓰고 있다. 두 번째 경우는 다시 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카톨릭에 대한 경우와 열광적인 재세례파에 대한 경우와 기타 교회 안팎의 이단 사설들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추기경이었던 사돌레토에의 답신이 첫 번째 경우라면, 재세례파에 대한 논문이 두 번째 경우이며, 자유파에 대한 비판이나 영원한 작정에 관한 그 같은 것이 세 번째 경우가 되겠다. 사돌레토는 1539년 3월에 제네바에 서신을 보내 제네바가 다시금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입장을 개진하였고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자 시도하였다. 이런 사돌레토에게 답신을 쓰는 일이 칼빈에게 위촉되었다. 노이저 교수에 의하면 그가 그 대답을 작성하는 데는 불과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이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의미를 담은 글은 달리 없다고 하였다.[88] 이밖에도 1542년에 카톨릭 신학자인 A. 피기우스(Pighius)의 "의지의 자유와 신적 은혜" 전 10권에 대항하여 출판한 "변호(Defensio)" 같은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89]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재세례파는 카톨릭 못지 않은 대적이었는데, 재세례파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 강요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며, 특별히 1544년에 '제세례파의 오류에 대하여 신자들을 무장하는 간략한 교훈' 이란 한 논문을 썼다.[90] 또한 제세례파 못지 않은 만만찮은 상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그들이 얻은 자유를 구가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기를 원치 않았다. 칼빈은 그들을 가리켜 루시안주의자요 에피큐러스주의자라고 명명했는데, 칼빈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율의 구속력과 영혼의 불멸성을 의심하는 자들이요 관습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평했다. 그는 특별히 그의 저서 "걸림돌에 관한 논문"(De scandalis)(1550)에서 그들을 묘사하고 비판하였다.[91] "걸림돌은 여기서 과오나 넘어지게 하는 것의 원인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교리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걸림돌이다. 개혁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분파들과 논쟁들 및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생활들은 또 다른 종류의 걸림돌이다."[92] 사람들나바라의 마가레타는 그녀의 궁으로 퀸틴(Quintin)과 포쿠에(Pocque)를 불러들였는데 이들은 자유주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범신론에 매여있는 사람들인데 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을 죄를 처음 야기 시킨 장본인으로 묘사하고 그러므

85) R.K. Rudolph, "Introduction,"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 by J. King(Grand Rapids: Eerdmans 1948), p.i.
86) ibid.
87) W. Neuser, Calvin(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p.26.
88) ibid., pp.43-45.
89) ibid., p.66.
90) Brieve instruction pour armer tous bons fideles contre les erreurs de la secte commune des Anabaptistes, par M. Iehan Calvin, a Geneve, par Iehan Girard, 1544.
91) Neuser, Calvin, p.9.
92) J.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0), 234면.

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역설한다. 칼빈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제네바의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그는 그들에 대해 그의 작품 '자신들을 영적인 자들이라 부르는 방종파들의 광신적이고 광분하는 분파에 반대함' (Contre la secte fantastique et furieuse des Libertins)(1545)에서 논박하였다. "자유주의자" 라는 이 표현은 또한 에피큐러스주의를 주창하는 단체에서도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프랑스와 제네바에서 관습의 자유를 부르짖는 일을 촉진하였다.[93]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1551)는 볼섹이 칼빈의 예정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하여 그를 재판하면서 써낸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는 그의 방대한 주석들과 신앙문답 및 교회의 규칙 등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필요 가운데 태어났으며,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 형성되었고, 지금도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제 4 장 칼빈이 생각한 바람직한 교회

이제껏 우리는 칼빈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는 사실을 칼빈 자신의 글이나 칼빈과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고 칼빈 이후의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칼빈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하는 점이다.

칼빈은 교회개혁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수성을 되찾고, 또 그것이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신들을 추방시키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94] 즉 예배의 순수성을 되찾는 일과 미신을 추방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는 당시 교회가 잃었던 것이요,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되찾고자 애썼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베드로전서 주석을 쓴 1551년에야 비로소 형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 걸음에 들어선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1539년에 쓴 사돌레토에의 답신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기 원하는 자들에게 시키는 경건 훈련의 기초 원리들" 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예배의 유일한 규범을 지키고 모든 거짓된 예배들로부터 떠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95]고 하여 예배의 순수성을 되찾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예배의 순수성을 되찾는 일은 교회의 본질과 관계되는데, 그에 의하면 "교회란 전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하나 그리스도의 한 영과 교리에 의해 묶여져 있으며, 또한 신앙의 통일과 형제적 연합을 지키고 배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96]이다.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구속받은 자들의 전체를 가리킨다. 이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의 구성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아신다."[97] 혹은 교회의 본질과 관계하여 당시 카톨릭 교회가 제도적인 유형의 교회를 강조한 데 비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의 주장은 이와는 반대로 교회는 어떤 유형적인 형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체는 그들이 어리석게 찬양하는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입니다."[98]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표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을 들고 있다. 그 때로부터 3년 후인 1539년에 쓴 사돌레토에의 답신에서는 "교회가 기초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하는 바, 그것은 교리, 권징 및 성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시키면 의식이 있습니다." 고 하여 앞서 말한 세 가지에다 의식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이 의식에 대하여는 "이 의식들을 통하여 거룩한 직임을 맡은

93) Neuser, Calvin, p.9.
94) Calvin, "Dedication," in Peter, p.223.
95)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31-32면.
96) 같은 책, 35면.
97) 맥닐, 244면.
98) Calvin, "Prefatory Address," pp.24-25.

자들을 훈련시키는 것”[99]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각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어떠한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로 여기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혔다. 교리에 관하여는 “주저함 없이 초대 교회의 기준에 호소하는 바”라고 하였으며, 권징과 관계하여서는 “초대 교회가 명한 것과 꼭 같지는 않으나” “그 본래의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성례와 관계하여서는 “성례를 부패하기 이전의 순수한 형태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본래의 권위를 갖도록” 노력하였다고 하였으며, 의식에 대하여서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의식의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적 유대주의로 빠진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채우고 신앙을 증진시켜주기보다 오히려 신앙에 방해물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식들은 여전히 간직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100]

칼빈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교회와 관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말씀과 그에 근거한 바른 교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는 “오직 성경의 순수하고 명백한 교리가 마땅히 그 빛을 발하여야 한다.”[101]고 하거나, “우리는 신자들이 ... 대비해서 그들이 확실한 믿음의 체험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견고하고 확실한 진리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 위에 그들을 확고히 서게 해야만 합니다.”[102]고 한다. 이 경우에도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중히 여겨 “성령 없이 말씀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불합리하듯이 말씀 없는 성령만을 자랑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불합리한 일”[103]이라고 하였다.

성례의 합법적 시행과 관계하여서는 그가 프레데릭 왕에게 보내는 헌사에서 “우리는 성만찬에서 우리 몸의 양식인 빵과 포도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고백하나이다.”[104]고 하였다. 성만찬 교리와 관계하여서는 그가 일찍이 그 당시 추기경이었던 사돌레토에게 보낸 답신에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 중략- 이러한 성만찬을 통한 교제의 형식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의 은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즉 그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됨으로, 우리는 그의 살이 되고 그의 뼈가 된다고 말하옵니다(엡 5:30).” 고 하였고, “그리스도 자신과 그 분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옵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이옵니다.” 고 하였다.[105]
권징의 신실한 실시는 구성원들의 행실을 교정하고, 추문을 퍼뜨리는 고집스런 죄인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유형(가견) 교회의 일면이다. 권징은 ‘신경들’ 혹은 띠로 묘사된다. 그것은 성찬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106]

주지하는 대로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당시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되었는데, 그 헌사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그가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확실히 살아 있으며, 그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지탱되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방어되며, 그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세상 끝 날까지’ (마 28:20) 함께 계실 것입니다.”[107] 그에 있어서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이며, 계속 그 생명을

99)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37면.
100) 같은 책, 38면.
101) Calvin, "Dedication," in Peter, p.224.
102) ibid., p.225.
103)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35면.
104) Calvin, "Dedication," in Jeremiah, p.xvii.
105) ibid., pp.xvii-xviii.
106) 맥닐, 244면.
107) Calvin, "Prefatory Address," p.24.

유지하는 교회이다.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가 되시어 세상 끝 날까지 유지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기대를 표현한 것이 그의 나이 27세 때였는데, 그가 55세를 일기로 눈을 감을 때까지 이 같은 기대는 변치 않았다.

제 5 장 그런 시대 속에서 칼빈이 가졌던 확신과 자세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당시의 상황과 결정적인 계기에 대하여 그의 시편 주석 저자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의 결연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만약 나의 모든 능력을 다 해서 그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의 침묵이 비겁자와 배반자라는 고발로부터 변호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도록 한 것이다." 108) 그는 결전의 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모든 능력을 다 해서" 대적들을 반대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를 회고하면서, "사실 이 교회의 번영이 내 마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109)고 하여 교회를 위한 그의 자세가 어떠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일찍이 사돌레토에게 보낸 답신(1539년)에서 자기를 향하여 교회를 버렸다고 말하는 비난들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들이 제게 대해 늘 비난해 온 바 교회를 저버렸다고 하는 그 비난에 대하여는, 저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아무 것도 없나이다. 만일 군대가 살육 당하며 자기의 계급을 버리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지도자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고 또 그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도록 외치는 자가 이탈자가 아닌 이상은 저 역시 이탈자일 수가 없나이다." 110) 즉 자신의 행위는 교회를 버린 행위가 아니라, 마치 살육 당하고 흩어지게 된 군대 가운데서 지도자의 군기를 높이 들어 그 군대로 하여금 각자의 위치를 지키도록 독려하는 행위와 같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오 주님이여, 당신의 종들이 흩어져 당신의 명령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자기들의 지도자도, 자기들의 봉사도, 또한 군대의 맹세도 거의 잊어버렸나이다. 그와 같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한 데 모으고자 저는 이방인의 깃발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대열에 들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당신의 그 고귀한 깃발을 들어올렸나이다" 111)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이미 그의 사역의 초기부터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임하였던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의 초기부터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하였던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그는 카알 5세에게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1544년) 그 논문의 마지막에 "이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속한 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닙니다. 설혹 우리가 돕고자 하는 자들의 완악함과 배은망덕으로 인해 결과가 더욱 악화되어도 나는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거룩한 신앙고백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조차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우리에게 있어 보다 좋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롱 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퍼뜨리는 씨앗이 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12)고 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과연 그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히 11:38)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중략-

108) Calvin, "Preface," in Psalms, p.xli-xlii.
109) ibid., p.xliv.
110)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69면.
111) 같은 책, 같은 면.
112) 칼빈,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181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였고, 몇 번이나 그것을 표현하였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일에 끝까지 헌신할 것을 굳게 결심하는 바입니다. 우선 내가 속한 교회부터 이와 같이 그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113]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성도들을 성경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일생 다하도록 글을 쓰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비록 내가 맡은 직무를 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그 시간이 제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글을 쓰는 일에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114]

칼빈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한 자각 위에서 그는 "교회를 가르치도록 소명 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끓는 온갖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아 버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도록 지정해 주신 자들을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가 모든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15]고 하였다. 교회를 위한 그의 일은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는 일"이다. 그는 그의 수고의 열매를 그의 생애 중에 이미 보고 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 남은 생애 동안도 그 같은 일에 매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진실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나의 다른 시도들이 생산했던 열매와 이 열매가 유용하기를 바라던 나의 희망이 너무나 만족케 해 주어서 나는 이러한 작업에 여생을 바치고자 합니다."[116] 그는 자신의 말씀 해석에 대하여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시편 주석의 저자 서문의 말미에 자신이 겪은 지식과 체험이 그로 하여금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시편을 묵상함에 있어서 어떤 알기 어려운 영역일지라도 잘못 빗나간 적이 없었다"[117]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주석은 그의 생애 거의 말년에 쓰여졌는데(1563년), 그는 그 책을 프레데릭 왕에게 드리면서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살아 있고 제가 속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추천사를 덧붙일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예언이 저에 의해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설명되었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더욱이 그는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 유효하게 적용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것이옵니다."[118]고 하였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정열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119]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은 자신의 한 생애를 돌아보는 말이요, 그 동안의 수고와 봉사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일" 이야말로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닌가! 잠시의 휴식도 용납하지 않는 이 땅위에서의 분주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부단히 천상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 부단한 묵상으로 훈련시켜야만 합니다."[120] 또한 그는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그 자체를 향해 나아갑시다. 또한 이 세상이 에피큐로스 학파에 의해 더욱 심하게 오염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정해진 목표에 닿을 때까지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분발해야 하겠습니다."[121]고 하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질적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중략-

113) Calvin, "Dedication," in Peter, p.226.
114) ibid.
115) Calvin, "Argument,"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1), trans. by J. Owen(Grand Rapids: Eerdmans 1846), pp.35-36.
116) Calvin, "Dedicatory," in Hosea, p.xix.
117) Calvin, "Preface," in Psalms, p.xlviii.
118) Calvin, "Dedication," in Jeremiah, p.xxiii.
119) Calvin, "To The Readers."
120) 칼빈, "헌사," in 다니엘, 77면.
121) 같은 책, 같은 면.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칼빈이 타고난 전사였던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는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교회개혁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다. 제네바에서 파렐에 의하여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로 권유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위험과 권력이 따르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학문적 해석가요 영감을 주는 자로서의 생활을 한 귀퉁이에서 계속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122] 과연 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살게 버려 두지 않으셨다. 뿐만 아니라 몇 년 후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도 "그는 이제 교회 일이나 다툼이라면 지긋지긋 했고,"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들로부터의 거듭되는 초청을 잘라서 거절했다. 이 때에도 부처가 위협에 가까운 표현 즉 "하나님은 요나처럼 반항하는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아십니다."고 말하므로 그를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끌 수 있었다. 이 때에도 그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항거할 수 없는 손길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학문적 유토피아를 떠나 목회의 가혹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123]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타고난 전사였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탁월한 전사로 만들어 가신 사람이었다.

제 6 장 "교회를 위한" 칼빈의 생애

교회를 위한 그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그의 삶으로 표현되었다. 칼빈 사후에 그의 동료 겸 제자인 베자는 칼빈의 생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칼빈은 과도한 연구와 금욕생활을 함으로써 체력을 지나치게 소모한 나머지 1564년 5월 27일에 제네바에서 54세로 별세하였다. 그 중에서 25년은 교회의 목사와 교사로 봉사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은 결코 순탄한 과정에서 진행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124] 칼빈이 제네바에서 처음에는 성서강해자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후에는 설교자로 임명되었다고 한다.[125]

여기서 자신의 생애에 대한 칼빈 자신의 말을 들어보자. "프랑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제 자의적으로 망명한 이후 30년이 지났사옵니다. 저는 이제 편력에 너무나 단련되었으므로 조국으로 돌아갈 의욕을 느끼지 않사옵니다. 저는 실로 여기에서 지금까지 타국인이옵니다."[126] 이 글은 그가 1563년에 쓴 것인데, 나그네로서의 일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엄연히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서 일생토록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원인이 조국으로부터 "순수한 신앙과 참된 예배가 추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회의 문제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였고, 나그네로 살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였고, 교회를 위하여 나그네로 생애를 마쳤던 것이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에게 잠시의 안식도 주어지 않았다고 피력한다. "나는 목사의 정식 직책 이외에 다른 임무도 지니고 있어서 최소한의 휴식마저 허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127] 교회를 위한 그의 수고는 23년 동안에 판을 거듭하면서 증보판을 내었던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간은 그의 전 목회사역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나는 병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128] 그로부터 2년 후인 1561년에 프랑스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다니엘 주석 헌사에서 "내가 이제까지 소란을 막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129]고 표현하여 교회를 위한 그의 수고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은 교회가 당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잊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나는 30년 동안의 수많은 고난

122) 맥닐, 151면.
123) 같은 책, 166면.
124) Th. Beza, "Iean Calvin de Noyon en Picardie," p.16c.
125) 칼빈 연구가 Walker는 칼빈이 설교자가 된 것이 제네바에 온 지 1년 후라고 보았으나, Parker는 "오래지 않아 목사로 선출되었다"고 말했다(Parker, John Calvin, p,69). 사돌레토에의 답신에서도 칼빈이 직접 "제네바 교회에서 나는 처음에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고 쓰고 있다(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박건택 역, 19면).
126) Calvin, "Dedication," in Jeremiah, p.xxiii.
127) Calvin, "Dedicatory," in Hosea, p.xix.
128) Calvin, "To The Readers."
129) 칼빈, "헌사," in 다니엘, 73면.

을 겪어 왔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여섯 달 동안 심한 치욕을 견뎌왔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130]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칼빈은 자신의 직분으로서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직분을 저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 때까지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나의 소망에 대한 하나의 맹세로써 모든 노력을 바쳐 왔습니다." [131]

이 같은 교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자세는 그의 말년에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미 그의 사역 초기에 그러한 그의 자세가 역력히 표현되고 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나는 결코 교황의 세력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더라면 내게 있어서 고위 성직으로의 길은 더 쉬웠을 것이라는 점을 자랑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바란 적도 없고, 내 자신 스스로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내게는 내가 바랐던 최정상, 즉 문자 그대로 자유롭고 명예로운 지위에서 안락함을 즐기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 어느 누구도 내가 교황의 왕국 밖에서 그곳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개인적 유익을 추구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설령 그러한 비난이 있다 해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132] 이 글은 그의 나이 만 30세 무렵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쓴 것이다. 그는 이미 그의 사역 초기부터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자세가 그의 일생 다하도록 지속된 것이다. 그는 그 답신의 말미에서 다시 "이 개혁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이나 특권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개혁자들이 멍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처음 개혁의 대의명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온 세상에 의해 경멸 당할 것 외에 기대한 바가 없었으며, 후에 동참한 사람들 역시 모든 사방으로부터 끊임없는 모욕과 비난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133]고 하여 그를 포함하여 그의 동료 개혁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일에 임했던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칼빈의 생애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을 가지고 있다. "이 일(여호수아 주석)에 관여하고 있는 동안 그의 체력은 ... 과도한 노고로 완전히 탕진되고 말았으며, 이 주석의 거의 대부분이 그의 심한 육체적 고통이 조금씩 가셔지는 순간 순간에 그가 부르고 그의 서기가 한 줄 한 줄 받아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기록되었다.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1563년 11월 30일 이 날은 그가 세상을 뜨기 전 채 6개월이 못되는 날이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병고에 시달려 연구를 계속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한 후,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여호수아서 주석을 시작했지만 ... 3장을 넘길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편지가 쓰여진지 두 달이 조금 지난 1564년 2월 6일 그는 마지막으로 강단에 섰으며 급기야 3월 10일에는 그의 임종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병세가 너무도 치명적인 것이라서 제네바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귀가 삽입될 정도였다. '오랫동안 병환 중에 있었으며 사경을 헤매기까지 한 칼빈 선생의 건강을 위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칙령이 내려지다.' " [134]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교회를 위한 칼빈의 삶은 순생의 삶 그 자체였다. 칼빈이 소천한 이듬해인 1565년에 찰스 드 존빌러는 칼빈의 에스겔서 주석을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이 칼빈의 생애 말년에 대하여 말하였다. "1563년 1월 20일 칼빈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공립학교에서 에스겔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자에 실려서 때로는 말을 타고 강의실로 가야 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은 질병의 악화로 인해 성경 강의와 독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2월 초순경에 에스겔 20장 19절까지 강의를 하고 그 이후는 끝맺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침상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투병생

130) 같은 책, 74면.
131) 같은 책, 78면.
132) 칼빈, 사돌레토에의 답신, 25면.
133) 같은 책, 79-80면.
134) H. Beveridge, "Translator's Preface," i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by H. Beveridge(Grand Rapids: Eerdmans 1854), p.v.

활을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명상하거나 구술을 시키거나 친히 집필했습니다." 135)

마침 말

과연 칼빈의 생애는 교회를 위한 생애였으며, 그가 일생동안 행했던 신학작업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칼빈 자신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쓴 표현 가운데서 그리고 그와 동시대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증언한 가운데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의 신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하여 그가 생각하였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으며, 그 시대 속에서 그가 가졌던 확신과 자세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내 주는 일에 그의 일생을 쏟아 부었다. "칼빈은 1540년 3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로마서 주석을 시작으로 1564년 5월 17일 제네바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25년
동안이나 이 주석 집필에 전념했습니다." 136)

[부록] 칼빈의 주석들

책명	헌사	기타
기독교 강요	1536.8.1 Fransis 1세에게	
로마서	1539.10.18 S.Grynaeus에게	+빌립보서
고전	1546.1.24 James 각하에게	
	1556.1.24 G.Carracciolo 경에게	
고후	1546.8.1 M.V.Rufus에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1548.2.1 Christopher 각하에게	
히브리서	1549.5.23 S.Augustus 폐하께	
딛, 야고보	1549.11.29 W.Farel과 P.Viret에게	
살전	1550.2.17 Maturinus님께	
이사야	1550.11.25 Edward 6세 전하께	W.Fringle의 서문(1850)
	? 1.15 Elisabeth 여왕 전하께	E.J.Young의 서문(1947)
벧전	1551.1.24 Edward 6세 전하께	
요한복음	1553.1.1 제네바시의 지방장관들과 의원님들께	
공관복음	1555.8.1 Frankfurt시 의회와 의원님들께	영역자 허얼의 서문(1847)
딤전. 후	1556.7.20 Edward 경에게	
호세아	1557.2.13 Gustavus 왕에게	칼빈이 독자에게 보내는 글
		+논증
		J.Bude(1557), J.Crispin(1559)
		Beza의 글
		영역자 J.Owen의 서문(1846)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영역자 J.Owen의 서문(1846)
요나, 미가, 나훔		영역자 J.Owen의 서문(1847)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영역자 J.Owen의 서문(1848)
학개, 스가랴		영역자 J.Owen의 서문(1849)
시편	1557.7.22	저자 서문
기독교 강요		칼빈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1559.8.1)

135) Ch. de Jonviller, "To All Truly Christan Readers," pp.xlvii.
136) 성서교재간행사 완간사에서, 1982, 527면.

다니엘	1561.8.27	프랑스 신앙인들에게	발행인이 독자에게
			영역자 서문(1852.5)
창세기	1563.6.30	Henry 왕자님께	+논증
			R.K.Rudolf의 머리말(1948)
출-신			칼빈의 머리말
예레미야	1563.7.23.	D.Frederick 왕께	발행자가 독자에게(1576.7.23)
			영역자 서문(?)
렘 애가			저자 서문
여호수아	1563.11.30	XXX	영역자 H.B.의 머리말(1854.12.)
에스겔	1565.1.18	Coliny 각하께(von Beza)	존빌러의 추천사(1565.1.18)
			영역자 Hughtom의 서문(1849)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